

호스피스 교육을 마치며...

박 종 철
남원의료원 인보호스피스

초 여름의 문턱에 시작된 정읍 시기동성당 호스피스 교육은 성당이라는 특정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타 종교인과 일반인등 250여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퇴근하자마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교육을 받았지만 졸지 않고 강의를 들으며 메모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기만 했습니다.

일흔이 훌쩍 넘어버린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 2대가 함께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호스피스 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들이 다양했는데 내 가족에 다칠 죽음을 슬기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호스피스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싶었고 봉사도 하고 싶고 나의 죽음도 잘 준비하고 또 사는동안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특히 자매님 한분은 지난 1월에 치매로 고생하시던 친정어머니를 하늘 나라에 보내 드리면서 정말이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또한 어떤 마음으로 남은 삶을 정리하시도록 해드려야 하는지 본인도 어머니도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이별을 했으며 후회속에서 가슴 무너지는 고통의 시간을 지냈는지 모른다면 호스피스 교육을 전에 받았었다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진 않았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 호스피스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나는 어떻게 인식했고 이해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막연하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행복한 죽음을 준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봉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어떠한 삶을 살 것

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며, 환자를 신체적으로만 돌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체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으로 총체적으로 돌보는 것임을 느꼈고 죽음은 단지 피하고 싶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삶의 완성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죽음을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만 알았으나 죽음은 삶의 자연스런 일부분이라는 것과 지속적인 간호와 의사소통으로 개별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되었으며, 호스피스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기 보다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하는 우리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호스피스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의견으로는 호스피스 교육이 활성화 되어 어느 병원에서든지 호스피스 병동이 있고 어디서든 호스피스 봉사자를 볼 수 있었으면 하고, 일반인들과 환자들이 호스피스에 대해 너무 많이 모르고 있으므로 활발한 교육이 더욱더 활성화 되었음 좋겠다는 의견, 암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경제적, 심리적이요인이 주로 이루고 있으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것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의료진 및 가족, 환자본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교육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교구 장상원 신부님께서 주관하신 파견미사를 끝으로 213명의 호스피스 교육 수료자가 탄생됐으며 저마다 가슴속 깊이 교육수료에 대한 뿌듯함과 앞으로 봉사자로서의 적극적인 호스피스 봉사를 다짐하며 교육을 마쳤다.